

將相里(沃溝郡)出土高麗小鐘外二點

全榮來

지난 二月 九日、群山市公報室에 申告된 高麗靑銅遺物 三點을 調査하고 이를 全北道博物館에 移管하였다.

本遺物은 沃溝郡 羅浦面 錦江下流南岸에 자리한 將相里 古相峯 烽火山 北東支脈기슭에서 出土된 것인데, 이 마을 張母氏가 방울을 파다가 우연히 發見하였으나 埋藏文化財處理에 관한 節次를 몰랐던 탓으로 群市內 文化堂主人 文母氏가 이를 保管 當局에 申告한 것이다.

出土物은 高麗小鐘·搖鈴·飯子の 各一點인데, 保全狀態가 良好하고 該地域에 있어서 드문 出土例이므로, 이가 逸失되지 않고 申告된 것은 千萬多幸한 일이었다. 各遺物別로 그 特徵을 略記하겠다.

① 高麗小鐘 本道에 있어서, 몇해전 全州地方에서, 一九七二年度에 是 扶安 地方에서 그 發見例가 있었으나, 이번 將相里의 것은 매우 小型인데다 高麗下代銅鐘의 몇 가지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어, 또 하나의 新例가 世上에 알려지게 된 셈이다.

먼저 크기를 보면 總長 二二·五cm、口徑이 一六cm 鐘身高 一六·三cm로서, 그 比率이 거의 一對一에 가깝다. 上部에 龍鈕와 甬筒(音管)이 있는데 甬筒의 길이는 六cm로서 口徑에 對한 百分率 三六%인 바, 十三世紀 高麗鐘의 特徵을 말해주고 있다. 甬筒上部에는 五顆의 小珠裝飾이 둘러 있는데, 元來는 七顆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甬筒에는 螺旋形 二重隆帶가 감겨 있고, 그 사이에 唐草文을 刻出하였다. 龍鈕는 比較的 精巧하며 右肢는 後方으로 뻗고, 左肢爪間에 寶珠를 받쳐주고 있다.

鐘身上緣에 十八葉의 三角形立花飾이 鋸齒狀으로 둘러 있고, 이에 接

하여 肩帶는 五角의 防牌形花瓣이 鑄出되었다. 立花飾 各葉面에는 如意頭文을, 肩帶防牌形垂花飾各面에는 忍冬唐草文樣의 花蕊를 陽刻한 것 등 意匠面에서 特異點을 보여주고 있다.

肩帶에 이어 四座의 乳廓이 있는데, 그 크기는 고르지 않다. 外廓은 幅 〇·六cm로 二重隆線만의 簡略한 것인데, 隅角을 額子처럼 對角線으로 連結시켰다. 乳는 通例에 따라 縱橫三列로 九個인데 乳盤은 없고, 꽃봉오리 모양을 새겼다.

鐘身の 乳廓과 乳廓中間下位에는, 前後(龍頭가 向한 쪽을 앞이라 한다)에 撞座를, 左右에 菩薩像을 鑄出하였다. 菩薩像은 雲座위에 結跏하고 合掌하는 모습의 坐像으로, 達摩形光背와 나부키는 天衣를 表現하였다. 像高約 八cm.

撞座는 直徑 五·二cm의 圓圈內에 九枚의 蓮瓣을 새기고, 直徑 一·八cm의 子房에는 中央一顆를 核으로 하여, 둘레에 六顆를 配置하였고, 子房을 中心으로 放射狀花褶이 每蓮瓣에 三條씩 刻出되어 있다. 下帶는 二·五cm 幅上下에 隆帶를 劃하고 內區에 寶相唐草文을 새겼다.

② 搖鈴 斷面이 若干 外張한 梯形的 四面으로 側面을 構成하고, 蓋面은 平面을 이루었는데, 모든 稜角은 둥글게 抹角되고, 各面下緣은 兩隅端을 起點으로 底邊中央이 一·五cm 內彎하였다.

蓋面 中央에는 方形隆廓이 있고, 그 中心에 圓孔이 둘러 있어, 자루를 끼고, 內부에 舌을 달았던 것 같다. 또 各側面 中央에는 雷形透孔이 하나씩 뚫려 音響擴散의 效果를 考慮하였다.

肩部·隅稜·口緣에는 모두 幅 二cm의 唐草文帶를 두르고 있는데, 그 手法은 前記 銅鐘에 比하여 奔放粗略하여, 製作年代가 前者보다 下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飯子 搖鈴과 비슷한 質을 가진 靑銅鑄造物이다. 徑 二七cm、厚 八·五cm、一面은 內空하고, 片面에 蓮花文이 鑄出되었다. 內空面周緣은 側面이 둥글게 內傾하였다가, 口唇部에서 다시 突起하였고 側面과의 接部에 모를 세운 突帶를 두르고 側面中央에는 二條의 溝帶를, 다시 側面과 打敲面모서리도 둥글게 다듬어져 넓은 隆帶를 들렀고, 그 下緣에 三個의 環耳를 配하였다. 各環耳사이의 間隔은 中心에서 七〇度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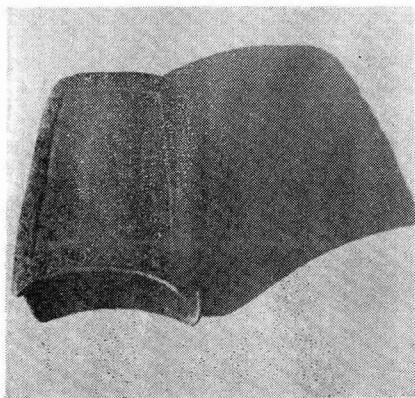


圖 3. 出土된 搖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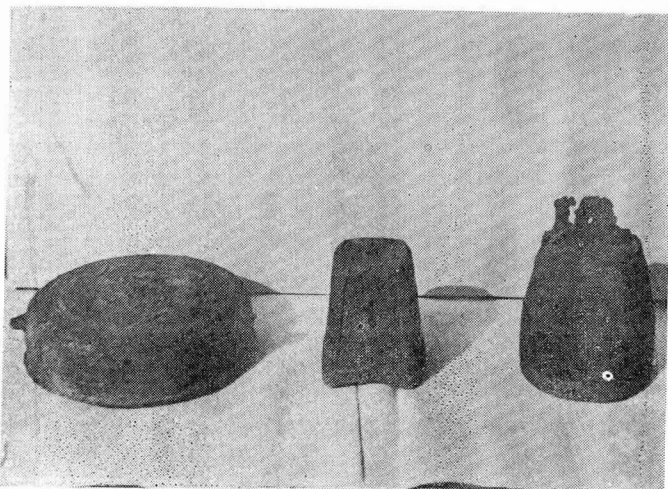


圖 1. 出土된 高麗小鐘外 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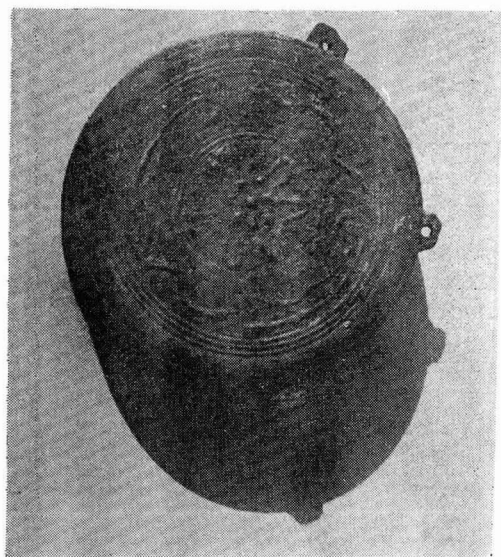


圖 4. 出土된 飯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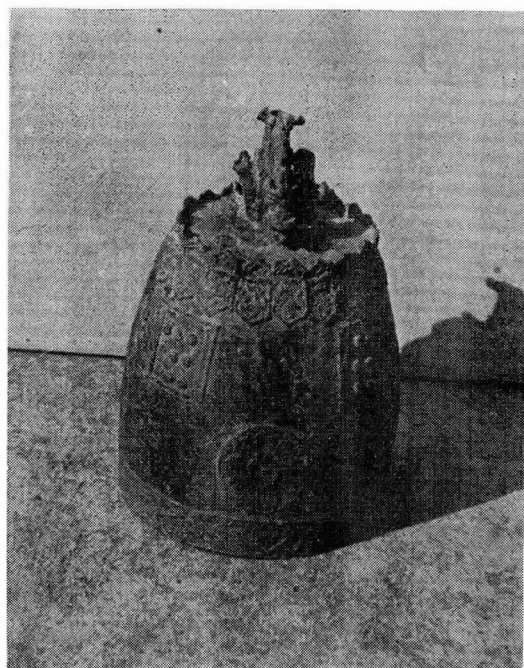


圖 2. 出土된 高麗小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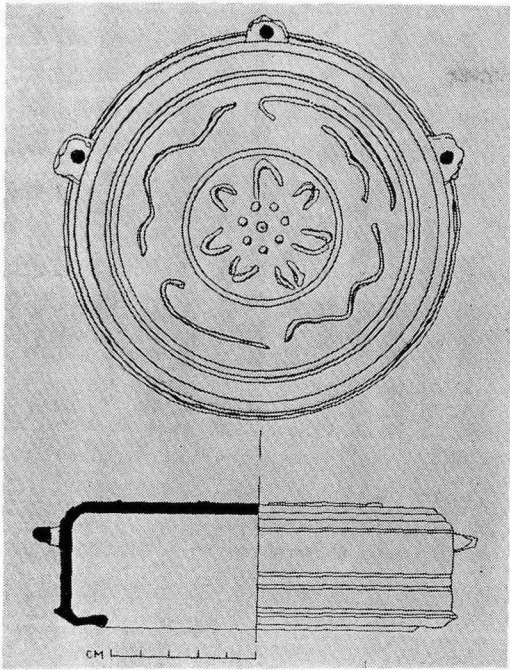


圖 7. 飯子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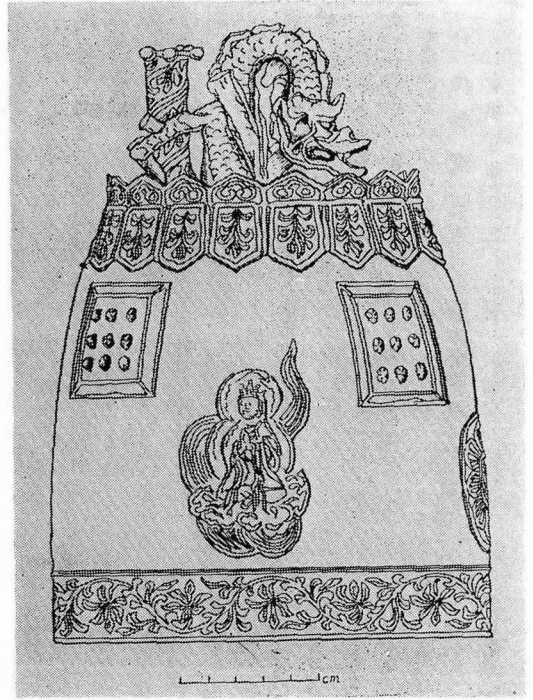


圖 5. 銅鐘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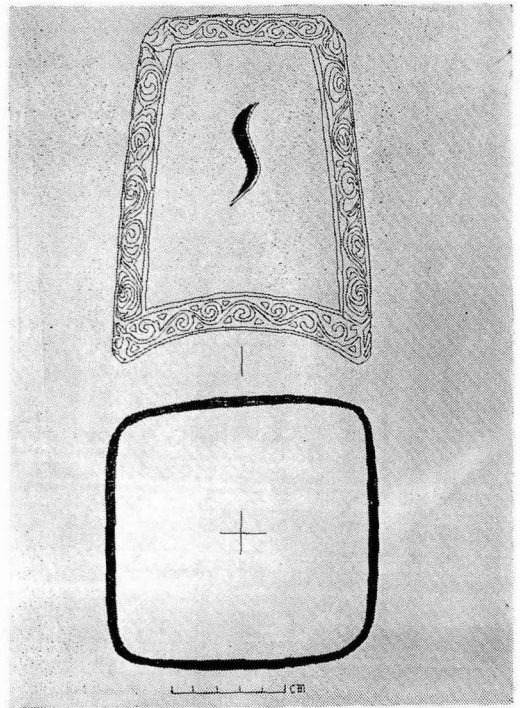


圖 6. 搖鈴 實測圖

打敲面은 밖으로부터 中心으로 들어오면서 四條의 圓圈溝帶를 두르고 다시 直徑 一〇·五cm의 二重圓圈으로 內區를 劃하였다. 이 內區에 蓮花文이 있는데, 七葉의 花瓣輪廓만을 無造作하게 突起시켰으며, 子房圈도 略消되고 다만 一果를 核으로, 둘레에 七果를 질서없이 配하였다. 外區의 唐草文도 退化가 甚하여 아무렇게나 蚯蚓狀으로 竅를 거리는 拙劣한 것이다.

以上の 세 遺物을 通하여 느끼는 바를 덧붙여 말할 수 있다면 高麗小鐘은 新羅佛敎工藝의 精巧性을 이어받은 高麗下代銅鐘의 特徵을 그대로 나타내었으나 佛敎文化가 차츰 王權·貴族의 庇護에서 逸脫해가는 過程에서 小形化·格式화된 作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搖鈴、特히 飯子の 意匠은 이에 反하여 精巧·均齊性을 完全히 無視한 破格的 奔放性을 지니고 있다.

이는 貴族佛敎의 姑息의 格式主義를 打破해 나가려는 雄勁·質朴한 道僧의 氣象을 엿볼 수 있는 바, 高麗朝文化의 崩壞期인 十四世紀 무렵의 作品으로 推定된다.